

인사말

마음의 풍성함까지 이루어 내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종교인들과 여러 시민들이 청명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종교문화축제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현장에서 종교문화축제를 갖게 되어 각별한 의미 또한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은 종교문화축제는 ‘생명, 함께 심는 행복의 씨앗’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행복을 이루는 씨앗은 때를 구분하지 않고 심을 수 있으며, 어느 계절이든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가장 소중한 토양,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더욱 빛나게 하는 행복은 우리의 소중한 마음으로 이루어 내는 향기로운 결실이자 나눔입니다.

유기농엑스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생명과 종교에서 추구하는 생명의 소중함은 인류애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하여 서로에게 해가되지 않는 유기농의 삶으로 우리 인류는 더욱 행복해 질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공존과 화합의 마음으로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의미 또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서로가 의지하며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상생의 세계가 곧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과 햇볕, 그리고 흙의 도움으로 만물이 생장하듯이, 농부와 노동자의 땀과 정성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안락하고 아름다운 정신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은 이러한 종교의 역할과 미래를 함께 체험하고 마음으로 담아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종교가 주는 위로, 평온, 안식, 나눔을 함께하시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희망,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든든

한 연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종교문화축제와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원만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북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호 조화로운 축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주신 괴산군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7대 종교 수장님을 대신해서 여러 종교인, 그리고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하신 각 종교의 신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축제가 온 나라와 국민에게 행복한 웃음으로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년 9월 19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자승